

농림부

신임 김달중 축산국장, 소비자 지향적인 축산정책 펼칠 것을 강조

김달중 농림부 축산국장은 구랍 30일 앞으로 소비자 중심,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 지향의 축산정책을 펼쳐나가는 한편 단체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축산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달중 축산국장은 팔레스호텔 12층 라일락룸에서 농림부 관계관 및 본회 김홍국 회장 등 축산 관련단체장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축산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것임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축산은 타 산업과 비교할 때 성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가 할 일과 축산현장에서 할 일을 역할 분담해 농촌을 주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축산정책에도 ‘고객’의 개념을 도입, ‘봉사’ 하는 축산행정을 펼칠 것이라면서 가축질병이라든가 환경오염 등 축산에 피해주는 농가는 그만둬야 축산업이 더욱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축산관련단체장들은 축산국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축산업이야말로 어느 산업 못지 않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인 만큼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요구했다.

또 축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인 점을 들면서 그런 의미에서 축산경제 전문가 육성을 건의했다.

닭뉴캐슬병 방역관리 방안 협의회 개최

닭고기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닭뉴캐슬병 방역 대책이 점차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구랍 18일 본회 회원사인 (주)하림, (주)마니커, (주)체리부로, (주)동우, (주)화인코리아 등 육계계열화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닭뉴캐슬병 방역관리방안’ 협의회에서 향후 추진방안을 밝히고 업계 차원의 세부계획 제시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부는 닭고기 수출농장 반경 50km이내 청정화를 위한 업체별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되 수출농장의 단지화를 통해 구성된 거점을 중심으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발생이 적은 지역부터 우선 지정하고 예방약 공급이 연초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방역효과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거점방역을 추진 수출업체와 관련 협회, 검역원, 시·도 등이 참여하는 ‘ND근절방역협의

체'를 구성, 거점방역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및 기술지도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에 대해 예방약과 소독약 등 방역비를 일부 지원키로 하고 2003년도에 뉴캐슬병 예방약 10억수분 40억원 중 수출업체 담당 농가수 및 사육수수 규모로 1·2차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약 공급 및 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중심으로 소독약을 우선 공급하되 기타 방역비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은 추후 검토 후 시달기로 했다.

농림부는 또 방역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현행 '돼지콜레라 및 닭뉴캐슬병 예방접종 명령' 고시를 폐지, 농림부 고시로 '닭뉴캐슬병 방역실시요령' 제정과 'SOP'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난계대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 '추백리 방역실시요령'의 부분개정과 시행 및 확인감독을 강화하고 'SOP'와 연계한 부화장 방역실시요령을 고시 제정하는 한편 종계장 위생 관리요령의 소독시기와 방법 등도 보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부터 ND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본격 시행하되 신속한 혈청검사를 위해 현행 혈구응집억제반응(HI) 방법에 효소면역반응(ELISA)을 병행하는 등 검사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종계부화장에 대해서도 ND백신접종 및 추백리 확인점검 결과 방역조치 위반사실 적발시 영업신고 반려 등 강력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축산 자조활동자금 시행 설명회 개최

농림부는 구랍 11일 농림부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본회를 포함한 각 생산자단체 자조금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축산 자조활동자금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각 생산자단체 자조금 실무자들은 한종연 사무관으로부터 본 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다 확실한 문구해석을 요구하는 등 자조금 거출에 적극성을 띠면서 각 축종마다 2~3개 단체가 공존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단체간 상호조율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년 축산단체 모임에 따른 방역 철저 당부

김포·강화지역에 이어 최근 이천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돼지 콜레라 조기차단을 위한 긴급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살처분 정책과 병행하여 구랍 25일부터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동절기에도 활동성이 줄지 않고 이동통제초소에서 노면 결빙 우려 등으로 소독이 어려운 점을 감안, 동 질병 전파방지를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농림부는 축산인들이 앞장서 왕래, 집회 등 집단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판단, 각 시·도 및 단체·협회에서는 신년 모임시 모임장소에 부직포 설치 등 철저한 소독 실시로 동 질병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3년도 축산물 수출정책 개발 연찬회 개최

올해 닭고기 수출촉진을 위해서 닭고기 수출단지 50km 이내 뉴캐슬병 등 질병관리 거점방역이 우선 추진된다.

농림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수원 소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에서 농림부를 비롯 농수축산물 수출관련 단체와 수출업체, 수출농업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03년도 농산물수출 대책수립을 위한 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축산반 분임토의 결과 현재 일본은 닭고기 수입검역조건으로 50km 이내 3개월간 뉴캐슬병 무발생을 요구함에 따라 닭고기 수출계열화업체 수출농장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및 질병 차단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종계장·부화장의 추백리 등 난계대 전염성 질병의 관리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아울러 뉴캐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 등 방역관리 위반농가에게도 과태료 처분 등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단계별 철저한 백신접종에 의한 무항생제 사육으로 안전한 닭고기·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수출 대형닭 생산을 위해서 사육시설 개보수 자금 및 농가기술 교육을 확대 및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농협뿐만 아니라 계열업체에도 국내산 닭고기 사용 체인점 설치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한편 신선냉장 닭다리육 수출 이외에 재래닭, 노계육, 가공품 등 수출경쟁력이 있는 다양한 품목들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도계규모 3만수 미만 업체까지 HACCP를 의무 적용하여 수출 도축장·가공장 HACCP 운영 및 지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개선 및 닭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2003년 축산물 수출목표량 조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가축 의무도축 확대 적용

기존 4개 축종에서 '닭'을 포함하여 8개 축종 추가

2003년도부터 의무도축대상 가축이 기존 소·말·양·돼지 등 4개 가축에서 닭·오리·사슴·토끼·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등 8종이 추가, 12종으로 확대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부칙 제2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간 축산물가

공처리법령상 가축의 범주에는 포함되었으나, 닭 · 오리 · 사슴 · 토끼 · 거위 · 칠면조 및 메추리에 대해서는 적용이 유예되었던 도축규정이 2003년 1월 1일부터 추가 적용된다.

이에 앞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상기 8개 가축을 도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가 영업 허가한 도축장에서 도살 · 처리하고, 정부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는 2003년도 상반기에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중심의 위생감시를 실시하고, 지도기간 설정 운용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 · 도 및 검역원 등에 시달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ACCP 소비자 홍보 포스터 및 도축검사교육용 CD 배부



축산물의 위생 ·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HACCP(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제도의 조기 정착 및 동제도의 소비자 홍보를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HACCP 홍보용 포스터 2만부를 제작하여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 업체, 소비자단체 등에 배부했다.



또한 도축장내 자체 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의 도축검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의 도축검사 교육용 영상 자료를 번역, CD로 제작하여 각 시 · 도,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했다.

2002년도 가금류 수출량 총 1,414톤 기록

2002년도 가금류 총 수출량은 1,414톤, 수출액은 2,608,452달러로 집계됐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한 2002년도 가금류 수출실적(검역기준)에 따르면 닭고기 총 수출량은 1,080톤, 수출액은 1,275,723달러로 나타났으며, 삼계탕의 총 수출량은 333,946톤, 수출액은 1,332,729달러로 나타났다.

이를 업체별로 분류해보면 닭고기의 경우 정우식품(주)가 402.0톤(446,460달러)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했으며, 금강종합식품(주) 198.0톤(206,140달러), (주)유진 198.0톤(232,650달러), (주)하림 98.6톤(167,299달러), 태평양물산 68.9톤(46,184달러), 세진축산 63톤, (주)화인코리아 30.1톤(126,342달러), 축협 목우촌 21.2톤(50,594달러)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계탕은 (주)화인코리아가 203.3톤, 수출액 85만5천8백7달러로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했으며, (주)하림이 53.0톤, 동아코리아 25.2톤, (주)마니커 21톤, (주)체리부로 8톤, 대동상사 7.7톤, 보리영농조합 7.1톤, 퍼스트트레이딩 2.9톤, 오뚜기와 (주)푸른식품이 각각 7톤을 수출했다.

양계수급안정위원회

닭고기 및 계란 소비홍보 리후렛 배부



지난해 하반기 양계산물의 생산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으로 양계농가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닭고기 및 계란의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양계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닭고기 및 계란의 소비홍보 리후렛 30만부를 제작하여 행정기관 및 각 시·도 농협, 관련 기관·단체, 업체 등에 배부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국산 닭고기 대일 수출 프로모션 결과 검토회의

지난해말 일본 현지 국내산 닭고기 수출 홍보강화사업 추진을 위해 개최된 일본 규슈지역 닭고기 프로모션 행사가 현지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김강식)는 구랍 23일 동회 회의실에서 「한국산 닭고기 대일 수출 프로모션에 대한 결과 검토 회의」를 열고 한국산 닭고기 전시 제품의 품질이 좋으며 일본산 닭고기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 점이 이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11가지 이상의 닭고기, 오리고기를 이용한 요리 시식 후 업계관계자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언론사인 일본의 식육신문과 식조신문에 행사관련 광고가 실렸으며, 일간공업신문과 서일본 신문, 서일본 TV와 매일 TV에서 취재를 나와 방송하는 등 한국 육계산업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주)하림, (주)마니커, (주)체리부로, (주)화인코리아, 농협 계육분사가 참가해 전시 및 시식행사를 했으며, 수입바이어들과 업체관계자들과의 상담도 함께 이루어졌다.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담자 반응은 한국산 닭고기 품질이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이 94%였으며, 80%가 수입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수입은 일본 닭고기와 질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36%가 대답했으며 중국산 제품보다 좋다는 응답이 44% 나와 수출시 제품의 품질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14일부터 16일까지 후쿠오카 지역 대형 유통점에서 (주)하림, (주)마니커, (주)체리부로, (주)화인코리아 등 국내 계열업체들이 실시한 할인판매 행사를 통해 한국산 닭고기의 선도 및 상품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했으며, 가격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육은 일본의 경우 980엔, 한국산은 580엔이었으며, 날개육은 일본산 780엔, 한국산 380엔

으로 파격적인 가격 할인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할인판매는 2, 3개월간 월 2회 정도 반복하여 일본 소비자에게 한국산 닭고기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김강식 회장은 “현지 신문과 뉴스에서 한국산 닭고기 프로모션을 자세히 취재했고 관심을 나타냈으며 할인점에서의 판매가 처음치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일본으로의 닭고기 수출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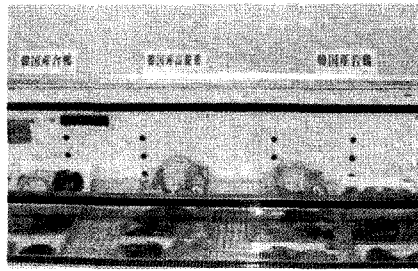
오찬 간담회시 김강식 회장의 한국 육계산업 현황에 대한 설명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화인코리아, 농협의 수출상담



한국 닭고기 할인 판매 전경(약 30평)



닭고기·오리고기 현물전시

닭고기 수출관련 용역과제 공개 발표회 가격

국내산 닭고기 수출을 위해서는 일본이 요구하는 대형 육계를 사육하여 닭다리육 생산수율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시키며 철저한 닭 질병 방역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한경대학교와 공동으로 실시한 닭고기 대일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가 완결됨에 따라 구랍 23일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회의실에서 닭고기 수출 관련 용역과제 공개 발표회를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조사연구 결과 현재 일본의 닭고기 생산량은 매년 1만2천톤씩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산 닭고기 생산 감소량은 한국만이 수출이 가능한 신선 냉장육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의 닭고기 수입량은 56만톤으로 대부분 냉장 부분육이고, 신선 냉장육의 비율은 2001년 기준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형태는 다리육이 6만3천톤, 통닭이 2만2천톤, 가공육 등이 47만톤이나 된다.

일본의 닭고기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가정소비가 31%, 가공용이 9%, 외식용 및 단체급식이 60%로 반 이상의 닭고기가 외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닭고기 소비형태는 일반 닭고기의 경우 가정용 35%, 외식용 60%, 가공용 5%으로 외식용이 많았으나, 브랜드육은 가정용 80%, 업소용 20%로 가정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육의 경우 가공용 10%, 외식용 80%, 가공용 10%로 외식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거래규격을 살펴보면 생체 거래규격, 신선도체 거래규격, 부분육 중량구분과 품질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결 닭고기에 대한 거래규격도 제시하고 있다. 닭고기 소매규격은 규격기준과 표시방법, 신생품 및 냉장육의 품질 표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요구하는 닭고기 생산체계로는 출하체중 2.5~3.0kg의 대형 닭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이 요구하는 닭고기 검역통관기준에 맞는 닭 질병 방역을 위해 수출닭 생산지역 반경 50km이내에 국가차원의 질병방역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요구하는 사양체제로 전환시 육계 1kg생산비를 현재 1,012.9원에서 915.9원~876.4원으로 절감시킬 수 있고 부분육 생산비율도 제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육계 생산비는 일본보다는 낮지만 대일 닭고기 수출 경쟁국보다는 높아 냉동 닭고기 대일 수출 경쟁력은 낮다고 나타났다.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한국산 닭고기의 안전성이나 품질 우수성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의 기호성이 높은 닭다리육을 일본산 닭고기 kg당 가격 610엔보다 100엔 정도 낮은 510엔에 수출할 경우 수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이 요구하는 대형 육계를 사육하여 닭다리육 생산수율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시키며 철저한 닭 질병 방역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후쿠오카 지역을 한국산 닭고기 수출 전진기지로 선정하여 시범수출과 계획수출 단계를 거쳐 본격 수출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며 정부에서는 닭고기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 육계사육농가, 수출 닭고기 생산가공업체에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K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003년도 제1차 대표자 회의 개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2003년도 제1차 대표자 회의를 1월 8일 경기도 과천시재 한음식점에서 개최하고, 각 회원단체 현황 및 최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와 2002년도 회계결산 및 2003년도 예산 계획(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신 축산회관 건립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축산회관 건립 후원금 모금운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C